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10 제165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이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 진행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28주일 (10월 9일)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 주시다 (루카 17,11-19)



나병환자의 기적 코시모로셀리, 1481-1482년,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소장

오늘 복음에서 열명의 나병환자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루카 17,17-18) 모든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의 모상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반사되어 『생명의 복음』 34항 참조) 빛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의 치유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0. 13.)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80번 “믿음으로” 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루카 17,13)

주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즐겨 바치십니까?

†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루카 17,17)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총에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병은 지금도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었기에 걸리면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자 열 명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기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인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 온 가족이 기도애 매달렸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것 역시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보통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입니까? 좋아하며 떠나 버린 아홉 사람에 속합니까? 감사하며 왔던 이는 또 다른 은총을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인도합니다. 감사 그 자체가 은총이고 복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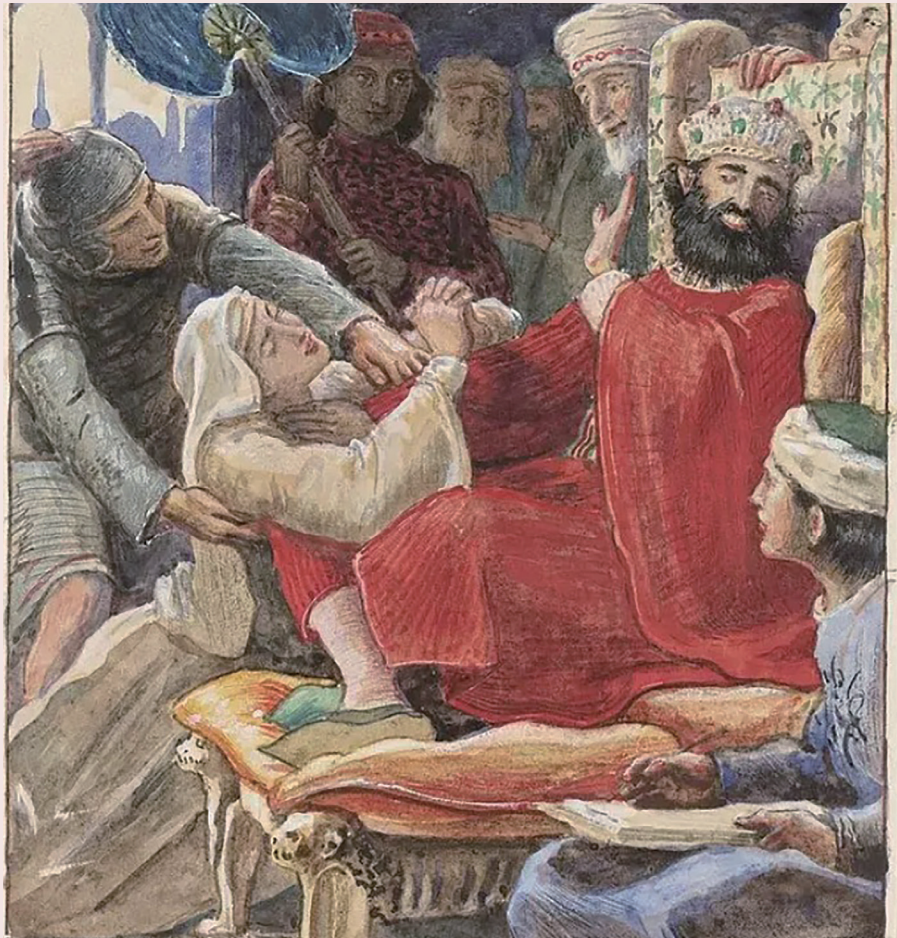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29주일(10월 16일)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루카 18,1-8)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2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6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 어라. 7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1)

나는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항구히 기도합니까?

✝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루카 18,5)

주님께서 귀찮게 여기실 만큼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누누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다면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피곤함이 사라진다면 누구나 매 순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항구함이 부족한 것은 이렇듯 기도의 즐거움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기도는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경험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 보면 기쁨의 기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비우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생

각도 상상도 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한다면 기도를 이끌어 주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끄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힘이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감정이 복잡하더라도 그것을 제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재판관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과부의 청원에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거만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청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양곡본당 소공동체

양곡본당 구역분과 위원장 서명숙 에스텔

코로나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지 벌써 삼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신자 수도 확연히 줄어 들었고 모든 사목적 활동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소공동체도 중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양곡본당 소공동체는 3개 구역 6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1개 반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동안 5개 반으로 구성되어 반장님을 중심으로 본당 청소, 신자들의 기도, 미사 중 봉헌봉사는 가능했지만 반 구역장 모임, 소공동체 모임 등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사목 방침으로 7월부터는 모임을 가져 보려 했지만 녹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에는 정말 성당이 활기가 찼고, 소공동체 모임도 열심이었습니다. 구역장을 오래 하다 보니 각 반별로 소공동체 모임을 참석해 보면 어찌나 분위기들이 좋던지....그때가 그리웁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음식도 차려지고 해당 반에 환자나 어려움 겪고 있는 이가 없는지 체크도 하고, 한 달 동안 활동 사항도 만들어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레지오가 기도로 무장 되어졌다면, 소공동체는 단단한 친교로 다져서 생활 나누기를 하면서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새 신자나 전입한 교우들도 소공동체에서 챙겨주며 사랑을 나누었고, 환자 봉성체도 구역부 소관으로 못간 지가 오래되어 돌아가신 이들도 몇 분 제서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예전의 활기차고 생동감 있던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소공동체 모임을 재개하려 합니다. 부디 제동에 걸리지 않게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도와 주소서!





성사의 경륜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성사의 경륜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1코린 11,26) 교회의 성사들 특히 성찬례의 거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를 전해 주는 것이다.

† 해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교회는 이를 **성사의 경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 성사의 경륜은 교회가 성사의 거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서 얻은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1076항)

† 용어

성사의 경륜

교회에서 말하는 **경륜**은 하느님께서 당신 구원 계획을 인류 역사 안에서 오묘하게 펼치시는 것을 말한다. **성사의 경륜**이란 특히 성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 성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성찬례

성체성사의 다른 이름으로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라는 뜻이다.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 업적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

성부께서는 어떻게 전례의 원천이요 목표가 되시는가?

전례 거행 중에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강생하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복으로 채워 주시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동시에 교회는 흠숭과 찬미와 감사의 행위로 성부께 찬양을 드리며 성자와 성령의 선물을 간청한다.

† 해설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하시는 일, 곧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행위는 축복(祝福)이다. 하느님의 축복은 교회의 전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베풀어진다. 또 한 전례를 통하여, 피조물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과 구원의 원천이며 목적이신 성부께서 찬미를 받으신다.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